

주부신행담 나를 향해 마주앉아 ①

내가 무슨 수행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이런 제목으로 글감을 삼는지 스스로도 가담함에서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다만 초심자로서 수행이란 승가의 스님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불자들이 하고, 또 살다가 보면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의 신행담을 펼쳐 보려고 한다.

나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집안에서 태어나 오십년이 넘게 그 종교 울타리 속에서 살던 사람이다. 불교는 종교가 아닌 문화사적으로만 느끼고 생각해 왔기에 그야말로 불교에는 문외한으로 지내왔다. 그렇게 영영 불교를 모르고 세상을 끝낼 수도 있었던 나에게 돌게 사위가 생기면서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둘째 사위의 인도로 불교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남들께서 지으신 책들을 굵주린 사람처럼 찾아 읽었다.

그래도 그때는 종교로서 보다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을 때였다.

그렇게 한 일년이 지났을 무렵 한 선배가 내가 불교서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 권의 책을 빌려 주었다. 그 가운데에는 <한마음요전>도 들어있었다.

나는 그때의 흥분을 잊을 수가 없다. 이때까지 내 모든 의식들을 모조리 흔들어 버리고 놀

남들 끌어 내리기를 번갈아 하며 살아온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일부러 하는 결손은 해봐 오려 그 작위만 더 드러나지 않게끔 결손하게 되지는 않는 법이다. 부모의 사상이 자식들에게 비처럼 몸에 스며들어서 자식들의 가치관이 부모의 상에서 표출되듯이, 속세의 심은 것들이 현세의 내 모습임을 그때서야 깨달고 땅바닥에 무너져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불법을 아예 모르고 생을 마쳤으면 두 번 다시 되돌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생을 또 다시 할 뻔 했다고 느꼈다. 그 뒤부터는



그림 · 이준석

'법구경'은 보물 가득한 보석상자였다 나는 그 한권의 책을 읽고 나서 불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행복! 물론 이 행복은 세속 잣대에서의 행복은 아니다. 그 후 일년간 <한마음요전>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다. 이때까지 그처럼 아껴며 읽은 책은 없었다. 그러나 불교에 한발 한발 들어 가면서 처음으로 달리 풀이 죽는 일이 생겼다.

을 새해를 맞으며 한암 큰스님과 탄허 큰스님 두 분의 출가원과 승낙하시는 말씀의 편지글을 현대불교신문에서 읽었다.

"속세의 선근이 있지 않고서야"

"속세의 선근" 요사이 이런 말들을 불가의 말씀으로서 자주 접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구절의 말도 몰랐다. 신비하면서 일면 무섭기도 한 그 말씀을 혼자 새겨 보노라니 나는 속세의 선근을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졌다. 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삼가게 되고, 방금 한 내 행위들도 자주 반추하게 된다.

나는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문제 때문에 상대를 오해하고 나쁜 눈을 뜨고 그를 본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만의 미루어 짐작한 나쁜 생각임을 알게 될 때 "내가 더 나쁘다"고 큰 소리로 자신을 꾸짖는다. 선업을 지을 때는 의식이 하려고 하고, 악업을 지을 때는 재빨리 나를 찾는다.

"이제 알고는 나쁜 일 하지 말자. 그것이 크든 작든. 보이지 않는 의식이든 행이든 결단코."

나도 모르는 순간 계종의 길로 들어서 버렸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나였다. 그렇기에 수십년 다니던 그 곳을 아무 갈등 없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었다.

때 맞추듯 나는 현각스님의 책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는 아이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에게 어떤 분이 아프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프지 않다. 아플 여유가 없다. 물론 백팔 배를 처음 할 때는 어지럽고 구토증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좀 쉬면 곧 괜찮아진다. 그것을 무릅쓰고 막무가내로 할 때, 마음과 몸과 의지가 일치되 지 않을 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불교는 사람에게 여유를 가져다 준다. 마치 종이의 여백처럼, 그 점이 함으로 좋다.

오매불망 키운 자식들이 멀리 있으면서 오랫동안 전화 한 통 해 주지 않을 때 용도 케기 처분된 기분을 느끼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런 것 같지 않다. "오직 자식들을 위하여" 이렇던 삶도 이제는 아니다. 내 할 일 다 했으니 그것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며 잘 지낼 것이라 마음을 느긋하게 가진다. 어질고 선업을 행하며 살기를 바랄 뿐 나도 전화하지 않는다.

그래도 때로는 책을 보는 것도 심드렁하고 혼자 유난히 술을하여 무언가 따뜻한 위로를 꼭 받고 싶을 때가 있다. "엄마" 하고 부르는 자식

들의 목소리로 내 테두리를 두르고 싶을 때 전화기로 손이 내밀어 지면 "아니지" 하고는 손을 거두어 들인다.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자. 또 대행 큰스님은 말씀하신다. "인연은 끊지 말고 집착은 버려라" 이런 큰스님의 그 말씀은 나를 홀로 서게 하는데 참고 있어서는 맞을이었다.

불교서적을 읽기 시작한지 삼년, 사람로 거서 기도한지 일년된 아직은 초심불자다. 가계에서 집에서 수행자들의 책들을 훑어 보아도 또 테이프에 담겨진 스님들의 열불과 진언열송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하면서 혼자 관희심이 나서 신나 한다. 하도 신이 나고 기뻐하는 것이 내가 경망스러워 그런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열불과 진언의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살펴보면 관희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 내가 좋아하는 '나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뜻은 모르는데 부드럽게 다가오며 울 것 같은 그 달콤한 마음도 못한 중생이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이었는지 모르겠다. 어찌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최순옥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47>

이런아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p>단전 건강운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래된 숙원이 될까봐 쏟아집니다.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잠이 잘오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p>₩ 240,000</p>	<p>물질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생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명운박사)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인명성씨) 지렁이로 수심년 고생하다 용이집(주부 장양심씨) 뇌막염이 건강이 호전(이호준씨) <p>₩ 350,000</p>	<p>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이어볼 (집21기 순금도금)</p> <p>₩ 80,000</p>
---	--	--

· 전화를 주시면 화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드로도 화를정기 무료우송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고혈압, 당뇨, 강, 장, 비만) 책자우송

수정피라미드 ₩50,000	수정정제수정피라미드 ₩30,000	은박피라미드 ₩45,000	은박피라미드 ₩80,000	자수정 목걸이 ₩75,000
홍 불도 ₩15,000	홍 불도 ₩35,000	푸르티 ₩55,000	백설의 피라미드 ₩45,000	정제수정 목걸이 ₩45,000
피라미드마스크 ₩30,000	수정목걸이 ₩7,000	피라미드마스크 ₩12,000	수정목걸이 ₩35,000	홍 불도 ₩15,000
홍 불도 ₩15,000	홍 불도 ₩15,000	홍 불도 ₩15,000	홍 불도 ₩15,000	홍 불도 ₩15,000

*** 萬事亨通 달마도**

정가 ₩ 20,000

萬事亨通 달마카드 무료증정

제품을 주문하시는 모든분에게 萬事亨通 달마도 카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금박)

지갑속에 간직하시면 福 · 運 · 건강이 좋아집니다.

韓國氣研究院 ☎ 02)455-6944, 02)453-5851 /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6-011003(예금주:김 건순)

갈월시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합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으로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시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모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재장제도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벗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 영탑의 특징**
- ▶ 담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담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물갈단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합은 영구히 사용 가능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oi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 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건강하고 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